

서울시립교향악단 온라인 공연

무관중으로 '수수께끼 변주곡' 등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펼친다. 서울시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 예정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을 무관중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스모 벤스케 상임지휘자는 대면 공연을 염두에 두고 공연 2주 전에 입국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관객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됐다.

벤스케는 최근 SNS에 "2주간 외출이 금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서울시향과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향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지속과 이태원 소재 클럽발 'N차 감염'의 지속적 확산, 대형병원 의료진 감염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면 공연의 취소가 연주자와 관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서 벤스케는 지휘봉을 들고 엘가의 작품 가운데 가장 회화적인 곡 '수수께끼 변주곡'과 힌데미트의 '베버 주제에 의한 변용',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연주할 예정이었다. 최승희 기자

피아니스트 이효주

'파리의 추억' 독주 무대

2010년 제네바 국제콩쿠르 준우승, 청중상, 특별상을 한꺼번에 받았던 피아니스트 이효주가 4년 만에 독주 무대를 꾸민다.

이효주는 다음 달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리사이틀 '파리의 추억(Souvenir de Paris)'을 연다. '파리의 추억'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을 졸업하는 등 파리에서 약 10년간 음악 활동을 한 이효주가 회상하는 파리에 대한 기억을 음악으로 채운 공연이다.

리사이틀의 프로그램은 생상스부터 인상주의 음악의 대가 드뷔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현한 라벨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음악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세 작곡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어려운 음악보다는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들을 골라 생상스의 '피아노를 위한 왈츠 형식의 에튀드', 드뷔시의 '기쁨의 섬', 라벨의 '라발스' 등을 선보인다.

이효주는 소속사를 통해 "프랑스 음악은 모호하다,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관객들이 독일 음악, 이탈리아 음악과는 또 다른 프랑스 음악만의 매력을 맛볼 수 있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 02-338-3816. 최승희 기자

■ 편집=전옥신 기자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의'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

일상 회복 꿈꾸며... '제의' 올린다

국립무용단, 총 8장 공연 구성
전통 제례의식 속 춤 주제
구음·재즈 혼합 신성함 극대화
동양사상 주역 64괘 시각화도

전통 제례의식에 등장하는 춤을 다룬 국립무용단 '제의'가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국립무용단은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LG아트센터에서 '제의'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제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제례의식 속 춤을 주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와 사상을 대표하는 의식무용을 담아낸 작품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지냈던 안무가 윤성주가 유교의 '일무', 무속신앙의 '도살풀이춤', 불교의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을 하나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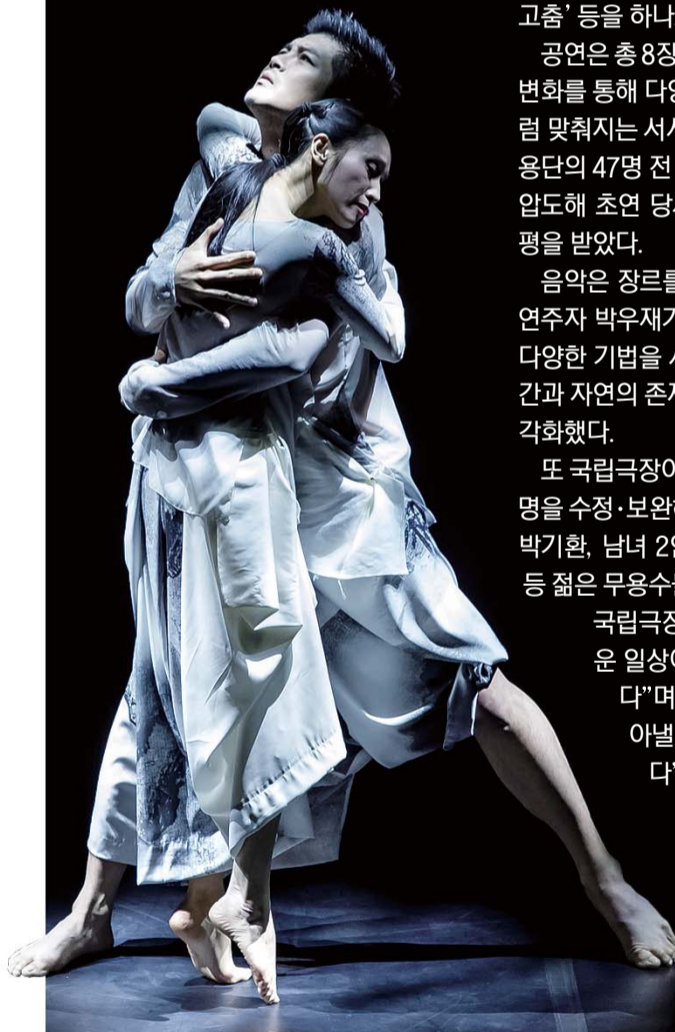
공연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공연에서는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대형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의식무용을 펼쳐낸다. 작품의 전개에 따라 퍼즐처럼 맞춰지는 서사, 구조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안무가 특징이다. 국립무용단의 47명 전 무용수가 출연해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군무로 관객을 압도해 초연 당시 "목말랐던 '무용수의 열정'과 재회한 느낌"이라는 평을 받았다.

음악은 장르를 넘나들며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가 맡았다. 전통 구음(口音)과 재즈 창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신성함과 신성함을 극대화한다. 무대미술은 인간과 자연의 존재를 체계화한 동양사상 주역의 64괘를 현대적으로 시각화했다.

또 국립극장이 아닌 LG아트센터에서 여는 재공연인 만큼 무대와 조명을 수정·보완하고 캐스팅에 변화를 줬다. 무대를 장악할 솔리스트는 박기환, 남녀 2인무에 더블 캐스팅된 조용진·이요음, 이석준·박수윤 등 젊은 무용수들이 에너지를 더한다.

국립극장 관계자는 "국립무용단은 코로나19의 종식과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를 무대에 쏟아낼 것이니 관객분들이 그 힘을 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값은 2만~5만 원으로 예매 및 문의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2-2280-4114)하면 된다. 한편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객석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 최승희 기자



INVITATION

2020년 전반기 국산화개발 사이버 전시회

- 일 시: 2020. 5. 25.(월) ~ 5. 29.(금), 09:00~17:00
- 장 소: 육군 군수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산화개발 전시장'
- 개발업체 혜택
 - 개발완료 품목 5년간 수의계약
 - 시제품제작비 및 정비비 지원
 - 방사청 국방연구개발 장려금 신청과제로 채택가능
 - 방사청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신청가능

● 연락처: 042) 616-6942(대표전화), 6943~6946(개발담당관)

● 인터넷: www.logcmd.mil.kr, '국산화 개발 전시장'

육군군수사령부
ARMY LOGISTICS COMMAND